

# 광주시, 책과 친한 '인문도시' 만든다

### '인문도시 광주 위원회' 발족...위원장에 김형중 조선대 교수 책과 함께하는 시민, 지역 출판·서점·도서관 경쟁력 강화 목표 김 위원장 "골목골목 문화 숨쉬고 명때리는 사람 많은 도시로"

광주시가 지역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인문도시 광주 위원회'를 발족하고, '책 읽는 광주' 조성을 향한 첫발을 뒀다. '책 읽는 광주' 조성을 향한 첫발을 뒀다. '책 읽는 광주' 조성을 향한 첫발을 뒀다.

하기 위해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책 읽는 광주 프로젝트'부터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민 매년 1인 1책 읽기 문화' 확산, 지역 서점 활성화, 자치구별 대표도서관 건립 등을 통한 작가-출판사-도서관-지역서점-독자를 연결하는 책 생태계 구축 사업 등이 핵심이다.

시는 또 ▲책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브랜딩 '노벨상의 도시' ▲어디서나 책을 읽고 향유하는 '책과 함께하는 시민' ▲독서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독자-작가-출판사-서점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세부적인 추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형중 조선대교수(국어국문학과)가 위원장을,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신형철 서울대학교 교수(영어영문학과)가 부위원장을 맡는다. 또 이용현 전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황봉년 전라도발전 대표, 이기호 광주대학교 교수(문예창작과), 송광용 심미안 대표, 김꽃비·이정현 문화기획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한강 작가가 "큰 기념관이나 화려한 축하 잔치를 원하지 않으며,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사는 광주를 만들어달라"고 밝힌 점을 고려해 작가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노벨문학상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심해 왔다. 광주시와 위원회는 우선 '책과 친해지는 문화'부터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는 13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미니북카페 '소년이 온다' 개소식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인문도시 광주 위원회'를 발족했다.

김형중 조선대학교 교수(국어국문학과)가 위원장을,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신형철 서울대학교 교수(영어영문학과)가 부위원장을 맡는다. 또 이용현 전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황봉년 전라도발전 대표, 이기호 광주대학교 교수(문예창작과), 송광용 심미안 대표, 김꽃비·이정현 문화기획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한강 작가가 "큰 기념관이나 화려한 축하 잔치를 원하지 않으며,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사는 광주를 만들어달라"고 밝힌 점을 고려해 작가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노벨문학상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심해 왔다.

광주시와 위원회는 우선 '책과 친해지는 문화'부터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 종합독서율이 43%에 불과하고, 10명 중 6명이 1년에 책 한 권을 읽지 않고 있으며 책 구입 경험도 1년 1권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인프라 중심이 아닌 '책 읽는 문화' 기반을 조성

## 광주시,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 대책 강화

### 내년 3월15일까지 제설작업반 운영 상무교차로 등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광주시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주요 도로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전 제설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13일 광주시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상무교차로·본덕나들목(IC) 등 차량 통행이 잦은 5곳에 겨울철 폭설 대비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했다. 자동 염수분사장치는 도로에 염수를 미리 분사해 얼음이 형성되는 것을 예방하고,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돕는 시설이다.

본부는 또 살포기·염수분사장치·덤프트럭·굴삭기 등 제설 장비 7종 42대를 점검하고 노후 장비들

교체했으며, 이상기온에 따른 폭설에 대비해 제설용 소금과 친환경 제설제 1640t도 미리 확보했다.

본부는 15일부터 2025년 3월15까지 '도로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3개반 32명의 제설작업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상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단계별 비상 근무조를 운영해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김중호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은 "겨울철 강설이 내리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산불 초동진화 훈련

13일 광주 북구 운동동 산불감시초소 인근 아산에서 북구청 공무원과 산림청 공무원들이 산불기간을 맞아 등짐펌프 등을 이용해 물을 뿌리며 산불 초동진화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지역 4곳 압축

### 서구 서창, 광산구 동산·삼거·지평

광주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설 입지의 타당성 조사 대상 지역을 4곳으로 압축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자치구가 최종 제출한 입지후보지 6개소 가운데 서구 서창, 광산구 동산·삼거·지평 등 4곳을 입지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나머지 2곳(남구 양곡·광산 동호)은 입지여건 부적정으로 제외됐다.

환경영향자원회수시설 용도 요건은 부지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매각동의는 6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입지 여건은 개발제한구역(GB) 평가 1·2등급지, 생태자연도 1급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에 대한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2개소가 입지 여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조사대상 4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 계획은 폐기물 시설축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15일 광주시

보, 누리집, 일간지에 각각 공고할 예정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향후 현장 방문과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후보지 순위를 확정하게 된다. 조사 과정과 결과는 공고하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앞서 광주시는 오는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급지에 대비해 1일 650t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소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광주시는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종 입지를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의회, 광주테크노파크 성범죄 직원 능력 징계 지적

### 감사실 배치돼 파면 2년 걸려...TP원장 "범죄 내용 파악 못해"

광주테크노파크(TP)가 성범죄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을 2년이 지나도록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강수훈(민주·서구1) 광주시의원은 13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TP 직원 A씨가 관련 업체 종사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도, A씨에 대한 파면 조치는 지난 9월에야 이뤄졌다"며 "피해자가 2022년 11월 일어난 성범죄 사실을 알리고 징계가 이뤄지기까지 2년 가까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TP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2년 11월 성범죄를 당하고 한 달 뒤 TP에 수사 진행과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TP는 피해자의 제보 접수

에도 A씨의 징계 등을 묵인하다 1심 판결 후인 지난 6월 A씨를 반부패·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7월 피해자가 TP 전 직원 대상으로 메일을 보내 징계를 요구했고, 같은 달 피해자 법률대리인도 TP에 징계 요청서를 보내자 TP는 지난 9월 말에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사건 발생 2년여 만이다.

강 의원은 "TP는 당시 피해자가 메일을 보내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지난 9월 A씨 파면 과정에서 일반 퇴직처럼 퇴직금을 100% 지급했다.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이런 대처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철의(민주·서구4) 의원도 "성범죄 직원을 2년여 만에 징계한 것은 2차 가해"라면서 "다른 행정기관은 중대 범죄의 경우 확정판결이나 오기 전 징계한다"며 능력 징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집 TP 원장은 "의명 제보에 대해 받고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담당 간부도 다른 사안으로 징계를 받아 업무 인수가 잘 안됐다"면서 "A씨의 성범죄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채 감사실로 배치가 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피해자나 변호인이 좀 더 빨리 정식으로 요청했다면(징계가) 더 빠르게 진행됐을 것"이라며 "A씨가 재판 중이라는 것만 알았을 판결이 나올 몰랐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윤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 단 위		모집인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http://www.kwangshin.ac.kr)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